

## 외국인 국내 적응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박배균\*

---

**요약:** 이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다문화 공간"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밝혀보려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간적 인식론의 결여로 인해, 외국인들의 적응과정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지역과 도시에 따라 외국인들이 처하게 되는 삶의 조건, 자연-인문적 환경, 문화, 생활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국내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의 적응과 만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주요어:** 국제적 이주, 적응, 지역적 차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 이주자, 다문화 공간

---

### 1. 서론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가적 이주가 활발해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지난 10여 년간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용과 적응이 최근 국내에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다른 유형의 외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전

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국가적 기업 활동, 교육,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의 초국가적 이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능력을 지닌 지식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떻게 국내로 이주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 및 적응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geopbg@snu.ac.kr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공간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분석적 단위로 설정하여 외국인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지리학적 관점과 공간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타나고, 또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도 장소를 벗어난 추상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다문화적 수용과 적응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지역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지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내 적응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1) 서울/경기, 2) 대구/경북, 3) 광주/전남의 세 지역 사이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한다.

## 2. 이론적 배경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주자들의 이주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

수준, 소득수준, 의사소통기술, 다문화체험경험, 거주기간 등과 같은 이주자들 개인적 수준의 변인들에 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김오남 2006; 구자순 2007; 김영란 2008, 박순희, 2009).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적응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학습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이주자의 학습능력의 차이는 그들의 적응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자들의 학력, 소득수준, 이주국의 언어구사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등은 이주자들이 이주사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이주국에서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에 참여할 기회와 경제적 여건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적응 정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임석희, 2009; 김오남, 2006). 또한, 한국과 같이 문화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국의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이주자들의 적응을 더 촉진할 수도 있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이주자들의 개인적 변인에 초점을 두는 입장에 따르면, 이주자들의 학습능력과 더불어, 이주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수용하려는 태도도 이주자들의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된다(임석희, 2009; 박순희, 2009). 특히, 다른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접촉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고유문화와 이주사회에서의 문화 사이의 이질감을 적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주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도 높을 수 있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이와 더불어, 이주국에서의 이주자들의 거주기간도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주국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에서 벗어나 주변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는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설명된다(김영란 2008). 하지만, 이주자들의 현지 거주기간과 적

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적응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이론도 있지만, 이주 초기에 이주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자세로 현지문화를 받아들이는 허니문 단계를 거치다가 실질적인 경험의 폭이 확대되면서 문화충격을 겪으면서 좌절과 위축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화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상승커브를 그린다는 U자형 이론도 제시되기도 한다(구자순, 2007).

이와 같이 개인적 변인을 바탕으로 이주자들의 적응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은 이주자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이주국에서 겪게 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들의 극복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접근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환경의 지리적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주자들의 개인적 변인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이주자들의 적응대상인 이주국 혹은 이주사회를 하나의 분석적 단위로 설정하면서 이주자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이주사회”에 어떻게 개인적 수준에서 적응하는 지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주자들의 적응대상인 이주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동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지 않고, 도시와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차별적이고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이주자들의 적응을 논하는 것은 이주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적응의 모습을 보이든지 이해하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한다.

최근 개인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주자들의 적응을 설명하는 접근법과 달리,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제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이주자들의 적응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이주자들의 적응 문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이주자들이 현지인들과 어떠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이주사회의 각종 기관과 제도에 어떠한 공식, 비공식적 연계를 지니고 있는지는 이주자들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자들과 현지인과의 대인접촉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주자들과 현지 미디어, 이주민 지원기관 등과 같은 제도와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주자들의 적응 정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이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연계망과 지지체제는 현지인 혹은 현지의 제도와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주자들이 그들 스스로 형성하는 사회적 연계망도 그들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 선행 이주자와의 사회적 연계망은 이주자들의 연쇄적인 이동을 촉진하고, 이주 후에도 이주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주사회 정착과 적응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된다(임석희, 2009).

사회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이주자들의 적응을 바라보는 접근법을 좀 더 확대해석 하면, 공간적 관점에서 적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지지체제와 같은 사회환경적 조건이 결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동질적이지 않으며, 지역과 도시 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조건이 지역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형성된 사회환경적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조건의 지리적 차이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과정의 공간적 특성상도 깊이 관련된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이민자 집단의 유인, 정착 등에 영향을 주는 연쇄 이주, 지리적 입지, 국지화된 경제적 조건, 사회적 하부구조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지리적 선택성을 가진다(Zhou,

1998). 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민자 집단들에게 상이한 기회와 한계를 제공하며, 각 장소는 상이한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데 이로 인해 장소 마다 이민자 공동체 형성의 방식이 매우 상이하 다. 이 처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 그리고 다문화적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며, 따라서 지역과 장소의 특성은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가 펼쳐 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박배균, 2009).

공간적 관점에서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박배균(2009)은 Jessop, Brenner and Jones(2008)가 제시한 TPSN들 을 이용하여,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어떻게 영역(Territory), 장소(Place),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의 4가지 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 속 에서 나타나는지를 개념화하였다. 표 1은 이 4가지 사회-공간적 차원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특정의 장소에 뿌리내려진 사회-경제적 관계와 과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국제 이주자들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과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은 종종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영역화된 장소의 출현을 결과하기도 한다.
3.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전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글로벌, 국가, 로컬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고 활동하는 힘과 관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필요하다.
4. 네트워크를 초국가적 흐름과 연결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영역적 공동체와 정체성을 해체하는

표 1.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주와 정착의 과정(박배균, 2009에서 재인용)

사회-공간적 관계의 차원	이주와 정착의 과정
장소(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관련 정보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li> <li>-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li> <li>-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 출현</li> <li>- 종족 집단 별 정착지의 지역적 차별화</li> <li>-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적 조건의 특이성</li> </ul>
영역(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영역성(시민권, 이민정책 등)</li> <li>- 이주민들과 그들 거주지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배제,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장소의 영역화</li> <li>- 이주민 거주지역에서 다양한 이주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소의 영역화</li> <li>- 이주민 문화의 상품화와 장소 마케팅에 기인한 장소의 영역화</li> </ul>
네트워크(Net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발달</li> <li>- 연쇄이주</li> <li>- 특정 지역에 국지화된 이주자들의 네트워크</li> <li>- 국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li> </ul>
스케일(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국가, 지방, 도시, 개인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힘과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li> <li>-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다중 스케일적 인식론</li> </ul>

힘으로만 이해하면 안되고,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연결을 국지화하고 더 나아가 영역화/재영역화하는 힘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의 4가지 사회-공간적 차원들 중에서 이주자들 적응의 지리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는 차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이주자들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고 정착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와 이동의 과정은 공간 위에서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기반을 둔 결절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이동의 결절지는 국제 이주자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그리고 그들과 토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화되고, 장소는 이를 통해 자신의 특성인 장소성을 드러내게 된다. 결국 초국가적 활동과 네트워크는 특정 장소에서 구성되고, 배치되고, 뿌리내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장소에서 ‘위치’ 지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200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장소에 뿌리내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나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 등장과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고민경(2009)에 따르면, 국제적 이주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는 것은 1) 그 장소가 역사적이고 장소특수적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 문화,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2)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그 장소에 뿌리내리면서 그를 바탕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의 초국가적인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이주자들의 적응이 전 국가적으로 동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장소성에 대한 고려는 국제 이주자들이 특정의 장소를 중심으로 이주하고 정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자들의 이주, 정착, 적응의 과정에 영향을 주

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들의 장소적 특이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질의 존재조건으로서 공간이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성 중의 하나는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Sayer, 1985). 여러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와 힘, 그리고 과정들은 개별적인 인과력을 지니지만, 이들의 개별적 인과력들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만나고 얽히고 접합하면서 개별적 인과력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창발력(emergent power)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창발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공간의 물질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름의 인과력을 지닌 개별적 사회적 행위자와 힘들은 공간을 통해서 특정한 장소 위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서로 접합되면서, 나름의 창발력을 만들어낸다(Sayer, 1992). 각 장소들이 지니는 상이한 역사-지리적 조건들로 인해,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배열되고 접합하는 방식은 장소 마다 상이하며, 이로 인해 각 장소에서 사회적 과정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적응하는 과정도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여러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만나고 접합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하고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영어가 쉽사리 통용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적은 이태원에서 국제 이주자들은 한국에의 정착에 덜 어려움을 느낄 것이지만,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적고 문화적 다양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과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국제 이주자들은 적응과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박배균 2009). 이 처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지니는 장소고착적 성격과 장소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차별화의 힘 때문에, 이주자들이 적응하는 모습과 과정도 지역과 도시 별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고, 국제 이주자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연구 방법 및 자료

####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이라는 함은 외국인 장기 체류자 중에서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관광취업(H-1)의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동안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 총 25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와 설문수는 표 2와 같다.

연구는 크게 다음의 2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단계: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분석  
설문조사 문항들 중에서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종속변수로 삼고, 그 종속변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설명변수로 삼아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 (2) 2단계: 지역적 차원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분석

이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가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이라는 3개 지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3개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직 이주자들의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각 지역 별로 다르며, 또한 이들 변수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적응에 영향을 주는 정도도 각 지역 별로 차이가 남을 보여줄 것이다.

#### 2)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전문직 이주자들의 일반적 인 사회-인구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이들의 출신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필리핀,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이며, 이 중 미국에서 온 사람들의 비중이 25.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4.45%를 차지하는 캐나다 출신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의 62.5%로 여자 보다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에 해당되는 이들이 전체의 46.48%로 가장 많다. 조사 대상자들이 전문직 이주자여서 학력은 매우 높은 편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94.5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62.11%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문직 이주자를 비자 유형에 따라 1) 기업투자, 2) 연구개발, 3) 회화강사, 4) 예술관광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업투자 유형은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연구개발 유형은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의 비자

표 2. 조사지역 및 설문조사 수

지역	설문수
서울	98
경기	34
대구	46
경북	23
광주	35
전남	20
합계	256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항목	빈도	비율(%)
출신국가	미국	65	25.39
	캐나다	37	14.45
	중국	23	8.98
	일본	22	8.59
	필리핀	12	4.69
	영국	22	8.59
	인도	10	3.91
	오스트레일리아	16	6.25
	러시아	6	2.34
	기타	43	16.80
	합계	256	100.00
성별	무응답	4	1.56
	남	160	62.50
	여	92	35.94
	합계	256	100.00
연령	무응답	12	4.69
	29세 이하	63	24.61
	30~39세	119	46.48
	40~49세	47	18.36
	50~59세	12	4.69
	60세 이상	3	1.17
	합계	256	100.00
학력	무응답	4	1.56
	무학	1	0.39
	중학교	1	0.39
	고등학교	8	3.13
	대학교(전문대포함)	242	94.53
	합계	256	100.00
결혼여부	무응답	7	2.73
	미혼	159	62.11
	기혼	82	32.03
	기타(이혼, 사별)	8	3.13
	합계	256	100.00
직업유형	기업투자	29	11.33
	연구개발	90	35.16
	회화강사	111	43.36
	예술관광	26	10.16
	합계	256	100.00

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회화강사 유형은 회화지도(E-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술관광 유형은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관광취업(H-1)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 직업유형별 설문 응답자들의 분포를 보면, 회화강사 유형이 43.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5.16%의 연구개발 유형이다.

#### 4.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 요인

##### 1) 변수 선정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및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표 4와 같다.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주장에 대한 5점 척도의 동의여부를 묻은 문항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5는 이 변수에 대한 응답의 빈도분포를 보여주는데, 전문직 이주자들의 경우 위 두 질문에 대해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성향의 응답도 40% 가까운 응답을 보이고, 매우 긍정적인 성향의 응답도 15% 이상의 응답을 보이는 등 특정의 성향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성향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변수를 통계적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선정하기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설명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의 문항들 중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될만한 것들을 표 6과 같이 선정하였다. 특히, 응답자들의 1) 사회인구학적 속성, 2) 이주 전 배경, 3) 이주 동기, 4) 현재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 5)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지리적 환경, 5) 거주지

표 4.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변수	변수의 정의	속성
종속변수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표 5.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의 빈도 분포

	종속변수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	
	빈도	%
무응답	2	0.78
전혀 그렇지 않다.	11	4.30
그렇지 않다.	11	4.30
보통이다.	81	31.64
그렇다.	111	43.36
매우 그렇다.	40	15.63
합계	256	100.00

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정도, 6) 거주 지역에서의 주민들과의 관계, 7) 한국 및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을 묻는 총 90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이들이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의 정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요인의 추출

위에서 선정한 90개의 변수들을 몇 개의 범주로 묶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여지듯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고유치(eigen value)가 2 보

표 6. 전문직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된 변수들

범주	변수	변수의 정의	속성
사회 인구 학적 속성	출신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러시아	터미
	성별	남자, 여자	터미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서열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이혼, 사별)	터미
	직업유형	기업투자, 연구개발, 회화강사, 예술관광	터미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쓰기)	5점 척도 (전혀 못함 → 매우 잘함)	서열
	출국 예정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서열
이주 전 배경	본국 가정의 경제 수준	5점 척도 (아주 빈곤 → 아주 풍족)	서열
	이주 전 연평균 소득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7,000만원, 7,000-1억, 1억원 이상	서열
	이주 전 타국 거주 경험 여부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터미
	본국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경제 수준, 직장, 정치 상황, 사회복지, 물질문화)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이주 동기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인지 수준	5점 척도 (전혀 모름 → 아주 많이 앎)	서열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경제발전, 좋은 직장, 정치 안정, 사회복지수준, 물질문화)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본국에서 취업 여건(직장부족, 낮은 임금수준, 국제적 경험기회부족, 해외 취업과 차이 없음)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표 6〉 계속

범주	변수	변수의 정의	속성
	이주 결정의 개인적 이유(능력 발휘 추구, 좋은 근무환경 추구, 국제적 경험 추구, 높은 임금 추구)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서열
	직장생활 세부적 만족도(시설의 편리성, 복지 제도, 업무시간, 임금수준, 업무능력인정)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연평균 소득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7,000만원, 7,000-1억, 1억원 이상	서열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19시간 이하, 20-29시간, 30-39시간, 40-49시간, 50-59시간, 60시간 이상	서열
	친하게 지내는 한국 동료	있다, 없다	더미
거주 지역 환경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지역사회 생활 적응 정도(기후 및 자연환경,	5점 척도 (매우 불편 → 전혀 불편하지 않다)	서열
	주거시설 및 주변환경, 소비 및 여가시설, 행정기관 이용, 의료기관 이용)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이웃주민과의 관계(의사소통, 경조사 참석, 도움 받음, 급전 대출 가능)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월평균 주거비용	직장 전액 보조, 20만원 미만, 20-50만원, 50-100만원, 100-200만원, 200만원 이상	서열
	주거환경 만족도(넓음, 쾌적, 적당한 비용, 좋은 주변환경)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월평균 생활비	10만원 미만, 10-50만원, 50-100만원, 100-200만원 이상	서열
지리적 지식	거주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정도	5점 척도 (매우 부족 → 매우 충분)	서열
	거주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지 정도(혼자 마음대로 이동, 대중교통 노선 인지, 시장-백화점 위치 인지, 행정기관 위치 인지, 학교 위치 인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지역 주민 관계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	5점 척도 (전혀 친하지 않음 → 매우 친밀함)	서열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 느끼는 정도	5점 척도 (전혀 느끼지 않음 → 매우 느낌)	서열
	친하게 지내는 지역주민의 수	없다, 1-2명, 3-5명, 6-9명, 10명 이상	서열
	본인의 정체성(본국에 자부심 느낌, 국적 포기 가능, 거주지역에 애착 느낌,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지역주민과 친목교류 정도	5점 척도 (전혀 하지 않음 → 매우 자주함)	서열
적응 과정	지역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문화, 한국말, 이동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두려움, 법-제도에 대한 무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외국인 이주자로서 느끼는 소외감 정도(낮은 소득, 법-사회적 권리 보장, 본인의 문화 인정)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서열

총 사용 변수 수: 90개

다 큰 1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 (1) 요인 1은 전문직 이주자들이 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본국의 정치, 경제, 물질문화, 사회복지, 취업 기회 등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요인이다.
- (2) 요인 2는 요인 1과 대비하여, 전문직 이주자들의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긍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 물질문화 발달 수준, 취업기회,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 수준, 임금수준 등에 대해 한국으로의 이주 전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 (3) 3은 전문직 이주자들이 지역주민들과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웃과의 의사소통, 친목교류, 상호부조 등을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된다.
- (4) 요인 4는 전문직 종사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어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상업시

설, 행정기관, 학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의 지리적 위치,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된다.

- (5) 요인 5는 이주자들이 직장생활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금수준, 업무량, 직장의 시설, 복지제도 등에 대해 응답자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된다.
- (6) 요인 6은 응답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나타내는 것이다.
- (7) 요인 7은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연평균소득, 한국으로 이주 전의 연평균 소득, 결혼 여부 등의 변수들과 관련된다.
- (8) 요인 8은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9) 요인 9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종 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주변 시설 및 환경 그리고 기후

표 7. 전문직 이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 및 해당 변수들

요인	주요 변수	부하량	고유치	설명된 분산비율(%)	누적 분산 비율(%)
요인 1. 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도	본국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0.774	7,911	8,790	8,790
	본국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	0.765			
	본국은 물질문화(TV, 컴퓨터 보급 등)가 뒤떨어져 있다.	0.751			
	본국은 사회복지수준(교육, 의료보장 등)이 낮다.	0.738			
	본국은 좋은 직장이 부족하다.	0.727			
	본국은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0.704			
본국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부족하다.	0.608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0.731	6,957	7,730	16,520
	한국은 물질문화(TV, 컴퓨터 보급 등)가 앞선 나라이다.	0.655			
	한국은 좋은 직장이 많은 나라이다.	0.641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다.	0.619			
	한국의 직장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0.571			
	한국은 사회복지수준(교육, 의료보장 등)이 높은 나라이다.	0.563			
한국의 직장은 대우가 좋고, 근무 환경이 쾌적하다.	0.520				

〈표 7〉 계속

요인	주요 변수	부하량	고유치	설명된 분산비율(%)	누적 분산 비율(%)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	0.781	5,336	5,929	22,449
	이웃들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	0.736			
	친하게 지내는 지역주민의 수	0.729			
	지역주민과 친목교류 정도	0.652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0.612			
	어려울 때 이웃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	0.602			
	지역주민으로서 소속감 느끼는 정도	0.584			
요인 4. 거주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정도	버스 및 지하철 노선을 잘 안다.	0.774	4,883	5,425	27,874
	혼자서 일하는 곳에 갈 수 있다.	0.773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위치를 잘 안다.	0.742			
	거주지의 지리를 잘 안다.	0.723			
	행정기관의 위치를 잘 안다.	0.633			
	학교의 위치를 잘 안다.	0.608			
	거주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정도	0.516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 직장의 임금수준은 나에게 적당하다.	0.751	3,925	4,361	32,235
	현 직장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나에게 적당하다.	0.691			
	현 직장의 시설은 쾌적하고 편리하다.	0.684			
	직장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0.594			
	현 직장에서 나의 업무수행능력은 인정받고 있다.	0.585			
	현 직장의 복지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다.	0.578			
요인 6.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어 구사능력(말하기)	0.850	3,429	3,810	36,045
	한국어 구사능력(듣기)	0.835			
	한국어 구사능력(쓰기)	0.810			
요인 7. 소득수준	연평균 소득	0.721	2,959	3,287	39,332
	결혼여부-기혼	0.691			
	결혼여부-미혼	0.659			
	이주 전 연평균 소득	0.620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	0.660	2,703	3,003	42,335
	한국의 법, 제도 등을 잘 모른다.	0.625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밖에 나가기 어렵다.	0.624			
	외국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렵다.	0.594			
	외국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화가 인정받지 못한다.	0.566			
요인 9. 지역사회 생활의 용이성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0.504	2,287	2,541	44,876
	행정기관 이용에 어려움 없다.	0.775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 없다.	0.733			
	소비 및 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 없다.	0.621			
	주거시설 및 주변환경에 잘 적응한다.	0.588			
	기후 및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다.	0.557			
요인 10. 여성요인	여자	0.755	2,094	2,326	47,202
	남자	-0.759			
요인 11. 비(非)회화 강사 요인	출신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0.512	2,021	2,246	49,448
	회화강사	-0.503			

에 어느 정도로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된다.

- (10) 요인 10은 응답자가 여성인지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 (11) 요인 11은 응답자가 원어민 영어 강사가 아닐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 3) 1단계 분석: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분석

위에서 추출된 11개의 요인들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 이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만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설명하는지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요인들과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종속변수(“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추출된 11개의 요인들 중에서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8(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만이 종속변수 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 제곱 값이 0.335여서, 이 4개 요인들이 종속변수를 33.5% 정도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 2, 요인 5, 요인 3은 종속변수 1과 정의 관계를 지니지만, 요인 8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전문직 이주자

들이 1)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졌을수록, 2) 현재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3) 현 거주지역의 주민들과 친하게 지낼 수록, 4)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이들 4개의 요인들 중에서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이주 전에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직장 생활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직장생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 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 정말로 이주 전에 가졌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가지는 느낌이 반영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요인 2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역적 차

표 8. 종속변수(“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B	Std. Error			
상수	3,594	0,051		70,107**	0,000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0,430	0,051	0,431	8,363**	0,000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237	0,051	0,238	4,621**	0,000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222	0,051	0,223	4,329**	0,000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0,207	0,051	-0,207	-4,023**	0,000

R<sup>2</sup>=0,335, F=31,553\*\*

\*: α=0,05 유의도

\*\* : α=0,01 유의도

원에서 설명하는 2단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전문직 이주자들이다 보니,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만족의 정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이거나 결혼이주자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이주자들과 달리 전문직 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집단이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발휘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는 전문직 이주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친하게 지낼수록 한국 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주자들의 적응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이 대부분 국가 전체를 하나의 균질적인 단위로 보면서 지역적 차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주자들의 소득,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관계망 등과 같은 비공간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주자들의 적응을 설명하여 왔다. 하지만, 이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이주자들이 지역주민과 맺는 관계가 이주자들의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적 문화와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주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이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경우,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3지역 별로 요인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2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4) 2단계 분석: 지역적 차원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분석

2단계 분석에서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내

적응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전문직 종사 외국인 이주자들을 그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1) 서울/경기, 2) 대구/경북, 3) 광주/전남의 3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별로 이주자들의 국내 적응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먼저 1단계 분석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각 요인의 값들이 앞에서 분류한 3 지역 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9는 ANOVA 분석을 통해 이들 3 지역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9에서 보이듯이,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종속변수와 요인들 모두에서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와 요인 별로 나타나는 지역 간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속변수(한국거주에 자부심을 느낌)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이 서울/경기 지역의 응답자들이고, 광주/전남 지역의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장 많이 느끼고, 반면에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이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장 적게 느끼며,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한다.
- 2)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다음이 서울/경기 거주 응답자들이고,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인 것이 광주/전남 지역의 응답자들이다.
- 3)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의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어 다른 변수와 같았지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응답자 집단은 광주/전남 지역의 응답자들이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의 응답자들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여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 4) 요인 8(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에 있어서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이고, 다음이 서울/경기이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고, 반면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 5)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 평균치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요약하였듯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 만족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와 그것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의 값들이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3 지역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과 적응의 과정이 지역 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9. 주요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

변수	지역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F	Sig.
종속변수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	서울, 경기	132	3,705	0,854	8,146	<b>0,000</b>
	대구, 경북	69	<b>3,754</b>	1,077		
	광주, 전남	55	3,127	1,090		
	Total	256	3,594	0,998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서울, 경기	132	0,104	0,839	11,102	<b>0,000</b>
	대구, 경북	69	<b>0,227</b>	0,994		
	광주, 전남	55	-0,533	1,179		
	Total	256	0,000	1,000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서울, 경기	132	-0,143	0,910	6,970	<b>0,001</b>
	대구, 경북	69	<b>0,375</b>	1,195		
	광주, 전남	55	-0,128	0,819		
	Total	256	0,000	1,000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서울, 경기	132	-0,077	0,881	0,890	0,412
	대구, 경북	69	0,047	1,314		
	광주, 전남	55	<b>0,124</b>	0,795		
	Total	256	0,000	1,000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서울, 경기	132	-0,045	0,896	9,225	<b>0,000</b>
	대구, 경북	69	-0,281	0,868		
	광주, 전남	55	<b>0,460</b>	1,226		
	Total	256	0,000	1,000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과정의 지역별 차별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변수와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각 지역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1단계 분석에서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와 추출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여기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그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1) 서울/경기, 2) 대구/경북, 3) 광주/전남의 3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별로 종속변수와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각기 따로 분석하여, 각 지역 별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 정도를 어떤 요인이 설명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표 10은 설문 응답자 중에서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 국한하여 종속변수와 11개의 추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은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인 8(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6(한국어 구사능력)의 5개 요인이다. 또한, 이 회귀모형의 R제곱 값이 0.415로 나타나,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이들 5개 요인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41.5% 정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은 설문 응답자 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 국한하여 종속변수와 추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69명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은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3개 요인이다. 또한, 이 회귀모형의 R제곱 값이 0.266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들 3개 요인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26.6% 정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는 설문 응답자 중에서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 국한하여 종속변수와 추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55명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낌”)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들은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의 2개 요인이다. 또한, 이 회귀모형의 R제곱 값이 0.329로 나타나,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들 2개 요인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32.9% 정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B	Std. Error			
상수	3,754	0,063		59,264	0,000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0,297	0,073	0,291	4,064	0,000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0,311	0,066	-0,326	-4,703	0,000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320	0,068	0,330	4,719	0,000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180	0,065	0,192	2,745	0,007
요인 6: 한국어 구사능력	-0,120	0,055	-0,154	-2,203	0,029

R<sup>2</sup>=0.415, F=17,890\*\*

\*: α=0.05 유의도

\*\* : α=0.01 유의도

표 11. 대구/경북지역 거주자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B	Std. Error			
상수	3,577	0,122		29,246	0,000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271	0,087	0,330	3,106	0,003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275	0,096	0,305	2,868	0,006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0,266	0,115	0,245	2,306	0,024

$R^2=0,266$ ,  $F=7,856^{**}$

\*:  $\alpha=0,05$  유의도

\*\* :  $\alpha=0,01$  유의도

표 12.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대상의 회귀분석 결과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Sig.
	B	Std. Error			
상수	3,471	0,141		24,696	0,000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0,556	0,111	0,601	5,004	0,000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368	0,160	0,276	2,300	0,025

$R^2=0,329$ ,  $F=12,768^{**}$

\*:  $\alpha=0,05$  유의도

\*\* :  $\alpha=0,01$  유의도

1단계 분석과 2단계 분석을 통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3은 이렇게 도출된 주요 설명 변수들을 전국적 차원과 각 지역 차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총11개의 요인들 중에서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8(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요인 6(한국어 구사능력)의 5개 요인만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와 각 지역 별로 나누어 보는 경우에 따라 이들 5개 요인들의 설명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본 경우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문직 종사 외국인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들은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8(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은 ㄱ)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을 수록, 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ㄷ) 지역주민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ㄹ)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표 13에 표시된 Beta값을 바탕으로, 이들 요인들 중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 전에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Beta=0.431) 종속변수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 (2) 서울/경기지역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는 표 13에서 제시된 모든 5개 요인들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설명이 된다. 서울/경기지역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은 ㄱ)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ㄷ)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을 수록, ㄹ) 지역주민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ㅁ)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을 수록,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 5개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Beta=0.33), 한국사회 적응에 대해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정도(Beta=-0.326)가 종속변수에 대해 보다 큰 설명력을 지닌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자들의 이주국에서의 언어 구사능력이 이주자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로, 이주자들의 언어구사능력이 이주자들이 이주국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언어구사능력의 향상은 이주자들로 하여금 현지인들과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이주자들이 이주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이주국 주민들이 지니는 문화적 편견과 이주자들에 대한 배제의 태도를 보다 잘 느끼게 하여 이주국에서의 삶을 덜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인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경우, 이들이 지니는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 그리고 종사직종에 대한 사회적 존경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이들을 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쉽사리 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향상되어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더 알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3) 대구/경북지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는 요인 5(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이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들이다. 즉,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은 ㄱ)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ㄴ)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ㄷ) 한국으로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3개 변수들 중에서 특히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Beta=0.33)와 지역주민과의 친밀도(Beta=0.305)가 종속변수에 대해 큰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광주/전남지역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는 요인 2(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요인 3(지역주민과의 친밀도)의 2개 변수만이 이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광주/전남지역에 국한하여 보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은 ㄱ) 한국으로 이주 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가졌을수록, ㄴ) 지역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의 지역 간 비교

	전체 Beta	서울/경기 Beta	대구/경북 Beta	광주/전남 Beta
요인 2: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0.431	0.291	0.245	0.601
요인 3: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0.223	0.192	0.305	0.276
요인 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0.238	0.33	0.33	
요인 6: 한국어 구사능력		-0.154		
요인 8: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 정도	-0.207	-0.326		
R Square	0.335	0.415	0.266	0.329

또한, 이 두 변수들 중에서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Beta=0.601)이 특히 강한 설명력을 지닌다.

이처럼 지역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변수들이 지역마다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 지역마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주 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들의 현재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 방식의 하나는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가지게 되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그들이 현재 한국거주에 대해 자부심을 자기게 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와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정도가 지역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표 9의 분석결과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방식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한국거주에 대해 가장 낮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이주 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정도도 가장 낮았을

까? 한국으로의 이주 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외국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별로 없어야 할 텐데, 왜 광주/전남지역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의 외국인들 보다 훨씬 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고 대답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답한 것이 실제로는 현재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감정이 상당히 개입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즉,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는 이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며, 이러한 현재의 부정적 이미지가 설문조사에서 이주 전에 이미 긍정적인 이미지를 덜 가졌던 것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 정도와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에서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광주/전남에서는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아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를 표 9의 결과와 연결시켜보면 재미있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

국거주에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지역 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이하였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이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 지역 사이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서울/경기나 대구/경북지역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거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서울/경기와 대구/경북지역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하게 되는 데에는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가 큰 영향을 주지만, 광주/전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 외의 다른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 광주/전남지역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서울/경기나 대구/경북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표 9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주민과의 친밀도도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낮고, 한국적응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거주에 만족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적 환경을 가진 곳임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이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다문화 공간”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밝혀보려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간적 인식론의 결여로 인해, 외국인들의 적응과정과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특히, 한국사회 전체가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삶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언어, 문화, 법률, 제도, 관습,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공간적 요인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었다. 하지만, “다문화 공간”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 지역과 도시에 따라 외국인들이 처하게 되는 삶의 조건, 자연-인문적 환경, 문화, 생활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에 적응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국내 적응과 만족의 정도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외국인들의 적응과 만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ㄱ)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졌을수록, ㄴ) 현재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ㄷ) 현 거주지역의 주민들과 친하게 지낼수록, ㄹ)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해와서,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직장의 근무여건에 만족하며, 이웃의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한국거주에 대해 더 높은 만족감을 지니는 경향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주 전 한국에 대

한 이미지는 반드시 이주자들이 한국으로의 이주 전에 가졌던 과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거주에 대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와 그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값들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세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ㄱ)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높고, 광주/전남에서 가장 낮으며, ㄴ)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정도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대구/경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ㄷ) 지역주민과의 친밀도는 대구/경북이 가장 높고, 서울/경기가 가장 낮으며, ㄹ)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고,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3개 지역 중에서 대구/경북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이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의 친밀도가 가장 높고,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가장 낮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지역에서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위 변수들의 값이 대구/경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이 세 지역을 따로 나누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국거주에 대한 만족감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지역 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첫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는 ㄱ)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ㄴ)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낄수록, ㄷ)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가 강했을 수록, ㄹ) 지역주민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ㄴ)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을 수록, 한국거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는 ㄱ)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ㄴ) 지역주민들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ㄷ) 한국으로 이주 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 외국인들의 경우는 ㄱ) 한국으로 이주 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가졌을수록, ㄴ) 지역주민들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적 이주자들의 적응은 일국 단위에서 동일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과 도시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적응의 과정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이주자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의 여건, 지역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 공동체 의식,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성, 이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의 정도 등과 같은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들이 지역 마다 상이하고, 이로 인해 이주자들이 이주국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도 지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본 연구는 잘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국제 이주자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국가 전체적 사회, 문화적 환경을 동질적인 것으로 상정하지 말고, 이주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차별적임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주자 적응의 문제를 지역과 도시적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지역 및 도시들 간에 나타나는 이주자 적응의 차이를 비교연구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 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구자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 201 11(2), pp.103-138.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0, pp.105-139.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임석희, 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35-654.
-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19-343.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389-401.
- Sayer, A.,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London: Routledge.
- Sayer, A., 1985, “The Difference that Space Makes,” in D. Gregory and J. Urry(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pp.49-66.
- Smith, M. 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London: Blackwell Publishers.
- Zhou, Y., 1998, “How Do Places Matter?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Ethnic Economies in Los Angeles and New York City,” *Urban Geography* 19(6), pp.531-553.
- 교신: 박배균, 151-74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2-880-7721, 이메일: geopbg@snu.ac.kr
- Correspondence: Bae-Gyoon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8, Korea, Tel: +82-2-880-7721, e-mail: geopbg@snu.ac.kr

최초투고일 2009년 12월 10일

최종접수일 2010년 3월 14일

## **Regional Impacts on the Adaptation of Foreign Professional Migrants to the Korean Society**

Park, Bae-Gyoon\*

**Abstract** : Relying on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spa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 adaptation of foreign professional migrants to the Korean society has been geographically differentiated. Due to the limits of spatial perspectives, existing studies on the adaptation of foreign migrants to the Korean society tend to ignore the geographical variations in the ways in, and the degrees at, which foreign migrants have been adapted into the Korean society. There are, however, significant regional variations in the living conditions, phys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at are given to the foreign migrants in Korea, so that the adaptation of foreign migrants to the Korean society is regionally differentiated. In order to prove thi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nd how the ways in which foreign professional migrants have adapted to the Korean society have been regionally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es.

**Keywords** : transnational migration, adaptation, regional difference, foreign professional migrants, multicultural space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